사립학교 깜깜이 교사 막는다… 임의 채용시 지원 중단

교육부, 신규채용 표준매뉴얼 배포
교원 선발시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
친인척 응시시 제척·보안 강화 등
공개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도 마련

서울 동작구 한 공무원 학원 내 독서실 책상에 9급 공무원 연도별 경쟁률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사립학교는 신규채용 시 관할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해야한다. 협의없이 임의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1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최근 5년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전체 29개 기관 중 24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되는 등 공공기관 전반에 채용비리가 만연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1명을 고발하고 27명을 수사의뢰, 99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우선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감사·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 부정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당하면 퇴출하도록 하고, 채용 비리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은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비리 피해자 특정이 가능할 경우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주고, 면접단계 피해인 경우 즉시 채용해야 한다.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할 경우는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전형을 다시 실시하도록 했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중 제재를 위해 추후 마련될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국민권익위원회)에 따라 인사 규정을 개정, 징계 감경을 금지토록 했다. 또 채용절차·기준을 구체화하고, 특별채용을 실시할 경우 주무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채용 공고를 의무적으로 워크넷에 등록해야하고, 임직원의 친인척이 신규채용될 경우 인원수를 기관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신규채용 계획을 사전에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되지 않은 임의 교원채용에 대해서는 임금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면접 등에서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친인척 응시 시 제척, 출제·채점위원 격리 등 보안 강화, 회의록·답안지 등 문서 자료 10년 보관 등 공개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을 기초로 각 시도교육청 등과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공동 제작해 현장에 배포한다. 표준매뉴얼은 채용계획 수립부터 임용보고까지 채용 전 과정에 대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채용 투명성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채용 관련 조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채용비리는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공공기관과 사립학교 등의 채용비리 근절이 교육신뢰회복의 최우선 과제"라며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현장의 변화를 지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서울사이버대와 사단법인 통일문화연구원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외동포를 위한 교육지원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통일문화연구원 소외동포 교육 '맞손'

교육 지원·양 기관 공동발전 등 협약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통일문화연구원(이사장 라종억)과 소외동포를 위한 교육지원과 양 기관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일문화연구원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남북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단법인 단체로, 탈북자의 한국 적응 연구와 지원 등도 수행한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소외동포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고 공동 발전을 위해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사이버대 정영애 부총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 및 보존과 계승 그리고 발전을 연구하는 통일문화연구원과 상호 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서울사이버대는 소외동포를 위한 교육과 행사 지원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일반고 살리기' 정책, 만족도 상승

진로진학 분야 만족도는 더뎌
학생, '교육과정 다양화' 만족↑
학부모, '진학지도 내실화'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지원을 확대하는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 교사 만족도가 대체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 등의 만족도는 지속 상승했으나, 진로진학 분야 만족도 상승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11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2주간 서울 189개 일반고 소속 학생 1만7843명, 학부모 8994명, 교원 1만155명 등 총 3만6992명을 대상으로 '2018 일반고 전성시대 관련 학교구성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항목별 5점 척도 문항에 대한 2015년~2018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다양화(3.47→3.63) ▲선택과목 개설(3.45→3.62) ▲수업 및 평가 개선(3.52→3.66) 등 주로 고교학점제 기반을 위한 교육 여건 변화에 대한 만족도 상승이 눈에 띄었다. 학부모와 교원 만족도도 유사한 비율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다만 학부모의 경우 '진로진학상담' 영역, 교원의 경우 '다양한 동아리', '진로진학상담', '진로진학프로그램'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2017년 대비 2018년 동일하거나 낮아지는 등 진로진학 영역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등 서울형 고교학점제의 긍정 측면이 반영된 반면, 현재 대입제도와 맞지 않은데서 오는 진로진학의 어려움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학부모들의 진학지도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올해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대한 질문에 학부모 중 가장 많은 28%가 '진학지도 내실화'를 꼽았다. 이어 '교육과정 다양화(26.42%)', '수업방법 개선'(22.66%) 순이었다. 학생(25.46%)과 교원(25.14%)의 경우 '교육과정 다양화' 요구가 가장 높았다. 특히 학생 중 '직업교육 기회 확대'(22.45%) 응답률도 상당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직업교육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정책과 동시에 학부모 대상의 대학진학지도 프로그램 내실화는 물론 진로 관련 인식 제고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전개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히 교원 대상 '고1부터 시작하는 진학지도 원격직무연구 '콘텐츠 전면 개편 보급 등을 통해 일반고에서의 체계적인 대입 지도 역량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에어콕 실내외 공기질 측정시스템 MOU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

세종대학교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는 에어콕과 '실내외 공기질 측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 에어콕 제품으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 신뢰성 보정 ▲수집되는 데이터의 관리 및 운영 방안 컨설팅 ▲신규 연구사업 및 정부 지원 사업 수행 ▲연구 인력 교류 등을 위한 상호 협력과 교류 방안을 합의했다.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 유성준 센터장(왼쪽), 에어콕 조흔우 대표가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종대학교

에어콕은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스마트 에어콕'을 통해 실내외 공기질을 측정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정보통신연구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설립돼 관련 기술이 필요한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 돕고 있다. /한용수 기자

김영편입학원 대학편입 전국투어 설명회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학 편입 전문 브랜드 김영편입학원이 2020학년도 대학 편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23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 설명회는 대전(18일)을 시작으로 전주(19일), 광주(20일), 대구(21일), 부산(23일) 등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다른 편입학 시험의 특징, 편입학 전형 방법, 서울지역 대학과 지방 국립대 등 대학별 편입 합격자와 불합격자 비교 분석, 편입 영어·수학과 공인영어시험 준비 전략 등이 소개된다. 또 편입 전문 컨설턴트와의 1대 1 맞춤형 프리미엄 컨설팅도 진행된다.

설명회 참석자 전원에게 편입성공 가이드북, 대학편입 합격코드 등을 무료 제공한다. /한용수 기자

동국대, LSK NRDO에 특허·기술 이전

고형암 치료제 후보물질

동국대는 지난 7일 오전 교내 로터스홀에서 (주)엘에스케이엔알디오(LSK NRDO, 대표이사 이영작)와 기술이전 협약을 갖고, 고형암 치료제 후보물질 특허 및 기술을 이전한다고 11일 밝혔다.

동국대 산업협력단(단장 김대영)은 연구책임자인 화학과 공영대 교수가 보유한 고형암 치료제 후보물질 'DGG-200338' 등의 특허 및 노하우 기술에 대해 엘에스케이엔알디오와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동국대는 "엘에스케이엔알디오는 DGG-200338이 고형암을 타깃으로 하는 혁신 신약으로, 기존 항암제와 차별화된 작용기전과 경구용 항암제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해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했다"며 "시험관내 효력 시험에서 대장암, 폐암, 신장암, 피부암 등의 고형암에서 우수한 항암 효과도 확인했고 생체 내 효력 시험에서 종양의 부피를 약 90% 가량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작 LSK NRDO 대표이사(왼쪽)와 동국대 김대영 산업협력단장이 협약식 후 기술이전계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DGG-200338은 특히 시판 항암제의 내성세포주에 대한 탁월한 항암효과도 나타나 기존 항암제 내성환자에게 보다 다양한 치료옵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항암제 선도물질은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됐다. /한용수 기자